

• 동아리톡톡 •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요리로 마음을 나눴어요

사하구의 최우수 동아리 '푸드패밀리'

올해 사하구의 우수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에 최우수 동아리로 선정되어 주목받는 동아리가 있다. 아동요리 동아리인 '푸드패밀리'이다. 회원들은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 아동요리 지도사 2급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로 2018년 10월에 결성되었다. 김미에 회장의 적극적인 권유와 박경란 강사를 만난 것이 동아리를 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경란 강사는 아동요리 지도사 2급 과정이 끝나고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다. 그녀는 자신이 강의하는 곳마다 회원들을 불러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했다. 그 덕분에 회원들의 실력은 쌓여갔고, 실력향상은 곧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회원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1급 과정도 이수했다. '푸드패밀리' 회원들은 아동요리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는 요리강습을 하고 있다. 아



동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하거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도 재능기부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주로 재능기부를 하는 곳은 사하구와 강서구의 어린이집과 장애인복지센터이다. 회원 8명의 연령대는 30대에서 60대 중반까지이다. 그러다 보니 딸과 엄마 같은 가족처럼 돈독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회원 중 조아라(35세·하단동)씨는 유일하게 작은도서관에서 강사

로도 활동 중이다. 똑순이 같은 그녀는 "동아리 회원들이 한 달에 1회 이상 재능기부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매주 1회 이상하려고 한다. 그리고 회원 모두가 메인 강사로 활동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포부까지 밝혔다. 또 김대심(63세·하단동)씨는 십 년 전부터 아동요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사하구의 평생학습관에서 아동요리를 배울 기회를 갖게 되었을 때 무척 기뻐하며 "아동요리

재능기부를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학습자들이 만족해하며 활짝 웃을 때이다. 그럴 때마다 저절로 낮은 자세가 된다"고 했다. 그리고 구안나(66세·당리동)씨는 "어린 이집과 장애인 복지센터뿐만 아니라 경로당이나 요양원에도 재능기부하고 싶다"며 활동영역이 넓혀지기를 희망했다.

우리는 마스크가 의복의 일부처럼 되어버린 코로나시대에 살고 있다. 코와 입을 막고 서로가 서로에게 거리를 두고 있지만 마음의 간격까지 생기지 않는 것은 '푸드패밀리'같은 동아리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스토리가 있는 요리로 더 많은 이웃들에게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이들의 작은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천중숙 평생학습구민기자
tagore0308@hanmail.net

음악 감상과 함께 배우가 되어 보는 수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개강



주말에 아이와 함께 격조 높은 클래식 음악 감상과 색다른 합창수업을 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인기를 끌고 있다. 수업은 6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과 오후로 을숙도문화회관 전 시관리동 2층 회의실이며 초등부터 중등, 해당 연령대 청소년과 학부모가 대상이다.

오전수업은 예술감상 교육으로 클래식을 시대별, 작곡가별, 국가별, 장르별로 알아보고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악과 우리나라의 음악을 배우고 감상한다. 그리고 기본적인 음악이론과 공연 예술에 대한 상식을 배운다. 을

숙도문화회관의 공연을 감상하는 수업도 포함된다. 오후수업은 직접공연을 하는 체험형 수업으로 브레멘음악대의 동화원작을 이해하고, 원작을 각색한 대본으로 쇼파이어 공연을 기획한다. '쇼파이어'는 하모니를 중심으로 안무, 연기, 퍼포먼스, 스토리가 결합된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이는 공연이다. 공연을 위해서 수강생은 대본을 읽고, 무대 발성 연습과 악보를 익히며, 안무 동작과 연출 동선을 연습해서 무대 리허설을 하고 직접 공연을 발표한다. 쇼파이어 공연은 가족과 지인들을 초대하

여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막을 올린다.

박소현(13세·내성초등) 학생은 "할머니가 사하구에 계셔서 이 수업을 알게 되었어요. 음악에 관심도 있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벌써 3년째 오전수업을 듣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잘 가르쳐 주지 않는 오페라와 클래식을 쉽게 가르쳐 주어서 좋아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주시는 간식도 맛있어요"라고 말했다. 윤한임(52세·당리동) 씨는 지인의 소개로 참석하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아이와 함께 무대에 서는 것에 설레고, 수강사의 전문성에 만족스럽고 덩으로 인문학 수업을 듣는 것 같아 정말 유익한 주말을 보낸다고 한다. 이승우 강사(부산로얄오페라합창단 지휘자, 고신대학교 외래교수)는 클래식이 이웃과 가족에게 소통과 즐거움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업 신청은 부산로얄합창단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문의 : 이승우(주강사)
010-5482-4790

김미영 평생학습구민기자
01hanthis@naver.com

영어학습으로 개인역량 키워요

원어민 화상영어 맞춤형 수업 진행

사하구에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사하구 원어민 화상영어'를 운영하고 있다.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은 영어회화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 근로자 등 구민에게 저렴한 수강료로 양질의 수업을 제공한다. 또한 온라인 학습으로 학습자가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어디서든 참여 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이다.

수강신청은 8월 19일~ 9월 9일까지 사하구 원어민 화상영어 홈페이지(www.sahaenglish.co.kr)하면 된다. 교육기간은 9월 15일~11월 11일까지 8주 과정으로 진행되고, 교육시간은 주2회(화, 목 45분) 또는 주3회(월, 수, 금 30분) 중 선택할 수 있다.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을 통해 글로벌 시대에 맞는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문의 : 1577-7767 (월~금 오후1시30분~10시까지 상담가능)

대상	수업형태	수강료 (2개월)
전체	1:1	178,000원
초1~중3	1:3	76,000원
	1:4	56,000원
고1~성인	1:3	90,000원
	1:4	66,000원

※교재비 및 배송비 별도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무료)

김수현 평생학습구민기자
16mmstory@naver.com

사하배움마당 VOL.26



사하배움마당은 사하구 평생학습 구민기자가 만드는 평생학습 소식지입니다.

발행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당리동) 전화 : 220-4801-6 팩스 : 220-4809 발행일 : 2020. 08. 20.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단연 최고

사하구에 202개 모임 등록, 연합회도 든든한 지원



(사하구 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 이승민회장(맨왼쪽) 외 임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를 꼽으라면 사하구를 빼놓을 수 없다. 사하구에는 202개 등록된 평생학습 동아리가 있다. 사하구에 동아리가 활발하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다양한 삶의 경험을 소통하며 즐겁게 학습할 수 있고 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민관의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사하구 평생학습 동아리연합회가 있다.

사하구 평생학습 동아리연합회가 작년 연말 정기총회를 통해 임원진을 새롭게 구성하고 출범했다. 연합회에 가입한 동아리는 45개 동아리 580명 회원이다.

대면 임원회의를 하던 지난 6월 제2청사 평생학습관에서 만난 임원들의 의지와 열정은 뜨거웠다. 임원들 모

두 활발한 동아리의 회장을 맡고 있는 만큼 나름대로 동아리를 운영하는 방법과 활동을 공유하며 독려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회장 이승민(49세·하단2동) 씨는 "나눔과 배움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생활 속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주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예술, 교육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공예동아리 '아름다운 손' 소속 이소영(54세·구평동) 부회장은

지역밀착형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회원 개인의 생활 속에 녹아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보이기도 했다.

대면활동이 어려워진 요즘 사하구 평생학습 동아리연합회는 비대면 활동에도 고민을 한다. 먼저 코로나 극복 힐링프로젝트로 동아리별 홍보영상제작 콘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다. 조심스럽게 소규모 공연전시회와 온라인 전시도 계획 중이다. 또 평생학

습 역량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하구, 사상구, 연제구 공동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이다.

평생교육사 최미소 씨는 "평생학습 동아리연합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사상구, 연제구도 있지만 자발적인 모임을 통하여 배움과 나눔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학습문화를 활발하게 만들어가는 곳은 단연 사하구입니다"라고 말한다. 사하구는 매년 공모를 통해 우수 평생학습동아리를 선정하여 학습경비를 지원하고 분과별 특성화 활동을 지원하며 평생학습 동아리실을 대관하는 등 평생학습 동아리 연합회 운영을 적극 후원하고 있다.

문의: 사하구 평생학습관 220-4118

이미성 평생학습구민기자
merrygold2971@hanmail.net

전국민 독후감 해마다 호응 높아져

제9회 사하 전국독서경진대회 접수 중

사하구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제9회 전국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접수는 9월 17일(목)까지이며 방문, 우편, 이메일접수 등이 가능하다. 부문별 지정 도서가 있으며 사하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양식을 다운받아 1인 1편만 접수할 수 있다. 전국 초·중·고등학생, 일반인(대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부문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있으며 전체 시상금 3백7십만 원이 입상자에게 주어진다. 결과는 10월 9일(금) 예정이며 사하구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전국독서경진대회는 지역주민들의 독서 의욕을 높이고 독서인구 저변확대와 독서의 생활화를 모토로 한다.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다른 지역에 사하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사하구 담당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전국 독서인의 호응이 높아지고 있다고 자랑한다. 지난해에도 400여 편이 접수되었다. 시상식과 더불어 입상자의 독후감 발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상별	대상도서
초등 저학년부 (1~3학년)	학교 처음 가는 날 뽕, 뽕, 두꺼비 뽕 화요일의 두꺼비 나에게 없는 딱 세 가지 나는 3학년 2반 7번 애벌레
초등 고학년부 (4~6학년)	잘못 뽕은 반장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 시간 가게 푸른사자 워니니 안녕, 우주
중등부	어쩌다 중학생 같은 걸 하고 있을까 너를 읽는 순간 체리새우 우리는 모두 그래타 호랑이의 눈
고등부	유튜브에 빠진 너에게 기억 전달자 길 위의 수학자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18세를 반납합니다
일반부 (대학생포함)	타인의 고통 페스트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지리의 힘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문의: 사하구청 평생교육과 051-220-4835
홈페이지: http://www.saha.go.kr

최진 평생학습구민기자
jini3259@hanmail.net

코로나19 확산방지 평생학습프로그램 일시중단

사하구는 코로나 확진자 다수 발생됨에 따라 전염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중단하였다. 8월말까지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과 작은도서관 여름특강프로그램 운영 중단, 1일 작은도서관 체험학습과 8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은 연기되었다. 평생학습관 등 프로그램 재개 일정은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재운영 계획이다.

기관명	중단내용
평생학습관 051-220-4117 평생학습 동아리실 051-220-4118	8월말까지 운영 중단
작은도서관(16개동) 051-220-4831 다대도서관 051-220-5861	운영 중단 열람·착석불가, (비대면 대출만 가능)
진로교육지원센터 051-220-4932	8월말까지 운영 중단
사하구청 전산교육장 (구민정보교육) 051-220-4301	8월말까지 운영 중단

김민정 평생학습구민기자
cute0114@hanmail.net

행복한 학습공간 동네방네학습관

비어있는 공간 함께 사용해요

가까운 동네방네 학습관 이용하기

사하구는 현재 지역 내 카페나 학원, 공방 등 공간을 활용해 배움을 나누는 동네방네학습관 25곳을 운영하고 있다.

동네방네학습관으로 장소를 제공한 시설은 사회 참여는 물론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용자는 집이나 직장 가까운 곳에서 평생학습을 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장점 덕분에 사하구 동네방네학습관 이용자와 제공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사하배움마당〉은 최근 평생학습의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는 동네방네학습관을 6회에 걸쳐 소개한다.

육교육 등을 운영하는 장소답게 15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의실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재로도 많다. 주부와 어린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커피소리'는 골목 카페이다. 차원재 사장은 통기타 평생교육 강사로 17년을 봉사하였다. 결혼 후 자기 사업을 갖고자 했던 그는 1년 전쯤 이 자리에 '커피소리'를 열고 부부가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기자 이곳에서 재능기부와 공간기부를 하고 싶었다. 통기타나 핸드드립과 같은 강좌가 열리면 좋겠다고 했다.

'신동경요리학원'은 20년의 역사를 가진 요리학원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직업학교로도 운용되고 있어 취업을 목표로 하는 수강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도종희 원장은 "지역민들이 이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용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과 다문화 이주여성들

이 많이 이용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평1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편입된 5개소는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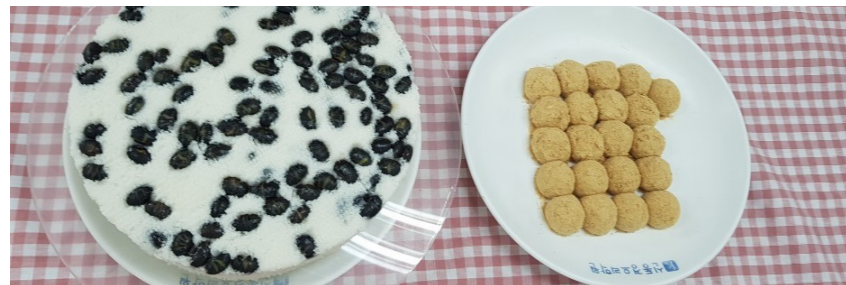
위력이 줄어들지 않는 코로나19로 평생학습이 위협받고 있다. 근접한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하여 모든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연기되는 사태에 이르러 동네방네 학습관의 프로그램을 언제 실행할지는 미정이다. 관심을 펼쳐치 말고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한 시기이다. 하루빨리 우리 곁에 있는 동네방네 학습관이 정상화되어 주민들의 학습활동이 이어지고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면서 공간을 제공해주신 대표들에게 감사사를 전할 수 있게 되기 바란다.

문의 : 사하구 평생교육과 220-4806

박강군 평생학습구민기자 albert01@hanmail.net

나도 창업할 수 있다

떡 제조기능사국가자격증 인기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한쪽에서는 송편을 예쁘게 빚고 있네요' 하단동 신동경 요리학원에서 열린 떡 제조기능사 실기 수업 광경이다. 사하구에서 개설한 떡 제조기능사 국가자격증반 수업이 조기 마감되어서 대기자가 많아 인기 강좌로 자리매김하였다.

떡 제조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떡 제조기능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전통시장의 떡 제조기능사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전통음식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 2019년 국가 자격이 신설되었다.

떡 제조기능사 이론과정은 6월에 끝났고 실기과정은 지난 7월 실기시험에 대비하여 공설기, 경단, 송편, 쇠머리(모두 배기) 떡 만들기 강좌를 하였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재료비는 12만원이다.

김수정 강사는 "떡 만들기는 생각보다 아주 쉽습니다. 옛날에 할머니들

이 예쁜 모양은 아니지만, 시루에 떡을 맛있게 찌셨듯이 물만 잘 맞추면 됩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배운 것을 부재료로 잘 활용하여 떡 공방이나 방앗간 창업을 할 수 있고 가정에서 손수 만든 떡은 가족들 간식과 손님 접대와 선물용으로도 좋다. 수강생들은 떡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쉬워서 신기하고 재미있어했다. 하정숙(51세, 대대동) 씨는 "평상시 떡을 좋아하는데 방앗간에서 하면 양이 많아서 냉장고에 넣어 두고 먹다가 맛이 변하면 버릴 때도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자주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요즘 우리 식탁에는 간소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인스턴트식품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젠 우리 집 작은 방앗간에서 만든 밀고 떡을 수 있는 건강한 떡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배우면 좋겠다.

김필분 평생학습구민기자 shjpbun@naver.com

결혼이주여성 조기정착 돕는다

사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통창구 역할

한국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여성이나 가족은 언제든지 '사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국제결혼과 결혼이민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급속하게 다문화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거기에 발맞추어 사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결혼이주여성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에 개소했다.

사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오피스 센터장과 24명의 직원은 방문 교육사업, 통·번역 서비스사업,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등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도록 애쓰고 있다. 그중 방문교육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언어소통 장애를 해소하고 한국생활 조기정착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 지도사를 파견하고 전문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1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아동 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과 상담서비스로 아동 양육 능력을 키워주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많은 회원이 모이는 수업은 중단되었다. 하지만 6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자조모

임인 제과제빵 프로그램은 8월 3일 시작되었다. 통합국적 자조모 임인 토탈공예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다양한 지원사업 중에서 호응도가 제일 높은 사업은 한국어 교육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한국어 수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70~80명 정도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는 대면 수업은 지양하고 온라인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하구와 강서구의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을 돕기 위해 설립된 사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를 바란다. 한국생활 적응에 꼭 필요한 기본 정보와 다문화 관련 최신 정보를 13개 국어로 제공하는 '다누리' 다문화가족지원포털도 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다누리 콜센터에 문의하면 한국어 교육 지도사를 파견하고 전문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1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아동 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과 상담서비스로 아동 양육 능력을 키워주고 있다.

문의 사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명옥 평생학습구민기자 arm5013s@naver.com

아름다운 그대

최선의 수업으로 최상의 반응을 얻을 때 보람

밭줄놀이 강사 윤미영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 윤미영(47세·하단동) 사하자연학교 강사를 만났다. 그녀는 고3·초6 아이의 엄마, 사하자연학교 강사, 숲해설 강사, 밭줄놀이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수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현장에서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졌다. 수업에 필요한 밭줄과 장비를 챙겨 수업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제 시간에 수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밭줄놀이수업이 있는 날은 더욱 바쁘다. 밭줄놀이수업은 안전하게 설치된 밭줄을 이용해 온몸으로 숲을 체험하는 것이다. 수업의 대부분을

현장에서 보내고 또한 고3 아이의 엄마로도 최선을 다하는 그녀의 모습이 참 대담해 보였다.

그녀가 숲해설강사로 활동하게 된 첫 인연은 2012년 사하구평생학습관의 '낙동강생태해설사'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서이다. 원래 산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산과 자연에 대해 공부를 하다 보니 더 많이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되었다고 한다. 평생학습관 첫 수강생에서 지금은 후배를 양성하는 어엿한 숲해설강사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처음 활동은 생태해설사과정을 수료하고 동아리를 결성해 유치원생과 청소년에게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서이다. 그녀는 숲과 생태계에 대해 혼자서 공부하면 자료가 너무 많아 힘든데 각자 공부한 것을 나누다보면 훨씬 많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동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숲전문가가 된 지금도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나무의 이름이나 꽃과 곤충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숲에서 감동을 받고



힐링하는 수강생의 모습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예전 합천댐 근처 숲에서 직장인 대상 수업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대면업무로 스트레스가 많은 50대 여성이었는데 수업을 마치고나서 너무 잘 놀았다고 했다. 그래도 늘 바쁘지만 긍정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윤미영씨의 올해를 응원한다. 내년에는 고3 엄마에서 해방되는 그녀가 하고 싶은 표현들이 "내가 정말 소중한 일을 하고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수업에 최선을 다하면 반응도 최상이 나옵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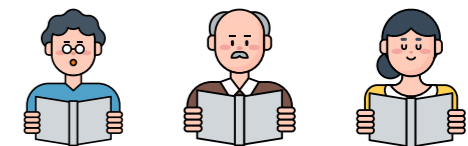
시간에 자신의 일 때문에 아이에게 소홀해질 때 속상하다고 한다. 바쁜 부모라면 많이 공감될 것이다. 또 자기개발을 위한 강의를 듣고 싶지만 시간적으로 제약이 많아 힘이 든다고 했다. 그래도 늘 바쁘지만 긍정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윤미영씨의 올해를 응원한다. 내년에는 고3 엄마에서 해방되는 그녀가 하고 싶은 공부를 실컷 할 수 있길 바란다.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는 재주를 가진 유쾌하고 입담 좋은 윤미영씨와의 인터뷰가 내내 즐거웠다.

김정숙 평생학습구민기자 kjs5328@hanmail.net

미니 인터뷰

사하도서관을 찾아

쾌적한 환경 속 책 읽는 재미 커졌어요



지난 5월 재개관한 사하도서관에는 구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하도서관을 찾아 도서관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도서관에는 방학을 맞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김준이(50세)씨 평소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새 단장을 해 쾌적해서 좋다. 옛날 책을 찾으려면 서고를 가야하는 불편한 점도 있지만 환경적으로 매우 만족한다. 책장의 책 순서가 낯설어서 아직 찾기가 서툴지만 익숙하면 괜찮으리라 본다. 주차공간이 불편한 점은 여전히 아쉬운 점이다. 커피숍이 있어서 좋으나 매점이 사라져 옛날 생각이 나는 것은 허전하다.

◇김서현(9세·괴정동)양 어린이실이 2층에 있을 때는 계단이 있어 위험했다. 1층에 있으니까 안전해서 좋다. 1층 미디어실이 줄어들어 조

금은 아쉽다. ◇박세진(사하초 5)양 유아실이 놀기 좋게 구성되어 있으나 시끄러워졌다. 유아실이 분리되었으면 좋겠다. 전에는 큰 책장에 책이 모여 있었는데 작은 책장에 분류되어 있어서 책 찾기에 편리해서 좋다. 조명이 밝아져서 책 읽기가 편하다.

그밖에 조승욱(9세·괴정동)군의 어머니는 공사하고 나서 쾌적하여 아이하고 앉을 곳도 있어 좋다고 말했다. 화장실도 깨끗하고 책읽기가 편해졌으며, DVD 실이 생기고 지하에도 실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아이들과 이용하기 편리해졌다고 한다. 경치가 좋은 2층 테라스도 마음에 드는 장소라고.

모든 게 새로워진 사하도서관을 많은 구민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경녀 평생학습구민기자 leekn61@hanmail.net

평생학습 벤치마킹

아름다운 아파트문화 활짝

부산 서구 아·지·트 사업

아파트 주거가 대세인 요즘, 아파트 안에서 평생학습을 하며 이웃 간의 단절이 아닌 소통과 교육, 문화의 장으로 만들어 가는 곳이 있어 눈길을 끈다. 부산 서구는 올해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전국 5개 지자체 중 하나이다. 대표 프로그램인 평생학습 아·지·트 사업을 특색 있게 운영하여, 국고 3,000만 원을 추가 지원받게 되었다.

아지트는 아름다운 지식공동체 아파트를 줄인 말이다. 부산 서구는 원도심 재개발 사업으로 신규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아지트 사업을 기획했다. 도시에서의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은 공동의 장소에서 살아가지만, 오히려 이웃 간 소통과 공동체 활동이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주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이를 계기로 자발적인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아지트 사업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회의실,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주민 10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신청하면 된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며, 전문 강사가 파견되어 각 아파트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진행된다. 캘리그래피 강좌, 공동텃밭 가꾸기, 천연제품 만들기와 같은 다양한 강좌가 이루어졌다. 더샵 아파트의 경우,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는 반찬 나눔 봉사, 아나바다장터 운영, 공동육아, 전시회를 열어 평생학습 수강에만 그치지 않고 활발한 주민공동체 활동을 이끌어 내었다. 평생학습 아지트를 통해서 배워 만든 다양한 친환경 물품들은 아파트 및 마을축제에 개최하여 판매 수익을 기부하는 활동으로도 이어졌다. 이은희 부녀회장은 앞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재능기부 참여로 이웃 간 소통과 공동체 활동이 부족한 편이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주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이를 계기로 자발적인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아지트 사업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회의실,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주민 10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신청하면 된다. 평생학습 프로그램